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연대 및 다큐 '크로싱즈' 상영회 개최

- 12월 15일(목) 오후2시30분 씨네큐 신도림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30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 및 다큐 '크로싱즈(Crossings)'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외국대사와 국내 소재 국제기구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이번 상영회에는 '크로싱즈'의 감독이자 미국 에미상을 수상한 디앤 불세이 림 감독을 비롯한 국제여성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평화운동가 앤라이트(Ann Wright)와 리즈 번스타인(Liz Bernstein) 전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 사무총장이 참석해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다큐영화 '크로싱즈'를 함께 관람한다.

해당 다큐는 2015년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북한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건너 남한으로 오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2015년 당시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 보위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국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크리스틴 안 등 15개국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사와 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은 여성리더십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평화의꽃 피우기를 통해 여성리더십 강화와 평화 증진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영화 '크로싱즈'를 통해 여성 리더십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상영회가 평화를 향한

발걸음과 여성 연대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행사 포스터]

